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Hallelujah Night 교육부 스태프와 교사들, 집사님들의 수고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 "Watch and Pray"
Prayer for the Nations: South and North Korean, USA, and All Nations
11월3일(토) 10am 세광교회
- 매일 성경 11-12 월호 나왔습니다. \$6입니다.
- 다음 주일(11/4) 새벽부터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해제됩니다.
토요일 밤/주일 새벽 시계를 한 시간 늦추시면 됩니다.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10월 안내: 하영미 집사 / 11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최성국 집사 (시146)

이번 주 친교: 홍영순 집사, 이영희 권사

다음 주 친교: 김경화 집사, 이미경 집사

제18권 42호

2018년 10월 28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예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Edwin Kim 전도사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 ----- 이민영 목사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 19:21; 롬 15:22-26; 행 23:11** ----- 이민영 목사
 설교(Sermon) -----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 80장 (통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 (Psalm) 34:1-8 ----- 최병식 집사
 찬양(Choir) -----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 19:21; 롬 15:22-26; 행 23:11**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 -----인도자
 설교(Sermon) -----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 384장 (통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나의 달려갈 길과 (행 20:17-38)

바울은 삼차 선교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예베소 장로들을 불러 교회를 맡기며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에 (또는 심령에) 매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교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21:4, 11)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곳으로 향합니다.

바울에게는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갈 길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 정한 길이고, 누구를 위한 사명이냐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한 것도 성령의 뜻이고, 환난을 예고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목적을 이용하기 위한 안내 정도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징조입니다.

믿고 산다는 것은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내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살아내느냐 하는 일입니다. 바울과 같은 특별한 헌신자가 아니라 누구나,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름을 열고, 예수 안에서 사명을 얻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가족, 일터, 관계는 나의 유익을 위해, 좀더 고상하게는 나의 자아의 완성을 위해 주어진 환경과 은혜가 아닙니다. 그 관계와 상황은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달려갈 길이 있고,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뜻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계명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됩니다.

바울이 예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부탁은 그런 삶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삼가라고 합니다(28). 교회의 장로, 목사 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는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미치며 삽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은 자기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선한 마음과 열심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깨어 살피라고 합니다(31). 예수님도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우려다가 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32).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탁하지 못하는 리더가 끼치는 폐해를 흔히 봅니다.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32) 말씀이 자기 삶의 생각과 자세와 습관과 태도를 변화시키게 하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도덕적으로 맞는 당위일 뿐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